

韓英語의 文章副詞 比較

- Modality vs. 命題를 중심으로 -

康 壽 彦

目 次

I. 序 言	IV. 眞偽判斷의 副詞
II. 文章副詞의 分類	V. 發話行爲의 副詞
III. 價値判斷의 副詞	VI. 結 言

I. 序 言

I - 1. (研究의 目的) 이 글은, 文章副詞(文全體를 수식하는 副詞類)와 述部副詞¹⁾(動詞·形容詞 따위를 修飾하는 부사)를 識別하는 기준을 “modality와 命題의 區別”이라는 原理에 두고, 이 原理에 의하여 韓·英 兩語의 文章副詞를 統一的으로 識別할 수 있음을 주장하는 데 그 意圖가 있다.

I - 2. (Modality와 命題) 發話行爲로서의 文은 크게 나누어서 두개의 意味成分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볼 수 있다. 하나는 命題內容(propositional content)이라고 할 수 있는 部分이고, 나머지 하나는 modality 라고 일컬어지는 部分이다. 즉, 文의 意味內容은 항상 命題內容과 modality 의 二大成分으로 이루어져 있는 것이다.

命題內容이란, 話者가 잘라낸 現實世界의 狀況(事件, 狀態, 行爲, 過程 따위)을 서술한 것으로, 그것은 話者에 의하여 客體化된, 말하자면, 話者의 바깥 쪽에 있는 客觀的 世界를 가리키고 있다.

이와는 對照的으로, modality 란, 發話時에 있어서의 話者의 心的態度를 서술한 것이다.

1) cf. 李桓默. 1975. “양상부사의 통사적 특성에 대한 의미론적 접근” 「어학교육」 7집, 全南大學校 語學研究所, p.1.

2 는 문 집

그것은 요컨대, 發話時點에 있어서만 有効한, 따라서, 客體化될 수 없는 話者 內部的 主觀的 世界를 가리키고 있다.

이 心的態度가 向하는 對象은 聽者일 수도 있고, 第三者일 수도 있으나, 一次的으로는 話者 自身이 잘라낸 現實狀況, 즉 命題內容이 된다. 또한 이 경우 주목할 것은 發話時的 心的 態度라는 점이다. 發話時란 瞬間的 現在이므로, 持續的 現在時나 過去時, 未來時的 心的 態度는 定義上 modality 라고는 할 수 없다.

Modality 를 표현하는 形式에는 여러 가지가 있다. 다음과 같은 韓國語의 終結法과, 英語의 主觀的 敘法助動詞 (Epistemic Modals)는 그 전형적인 보기라 할 것이다.

- (1) a. 서울에 비가 왔겠다.
 b. 네가 가겠니?
 c. 곧 진달래가 피겠다.
 d. 곧 진달래가 필 꺼야.
 e. 나는 떠나려고 하다.
 f. 나는 떠나려다.
 g. 네가 집에 가려니?
 h. 내가 다시 올꺼.
 i. 내가 편지 쓰마.
 j. 내가 갈까?
 k. 차 드실까요?
 l. 차 드시겠어요?

- (2)²⁾ a. They *may* be coming tomorrow.
 b. They *may* have come last year.
 c. They *may* have come already.

또한, 韓英語의 感嘆詞도 modality 表現이다. 感嘆詞는 話者의 發話時에 있어서의 心的 態度를 표명하기 위해서만 존재하기 때문이다. 그 밖에, 英語에서 주목할 만한 modality 表現으로는 I think, I guess, I imagine, I suppose, I'm afraid, I'm sure, I'm certain, It seems, It looks to me (that/as if)등이 있으며, 이들은 「생각하건대, 보건대, 짐작하건대, 나의 생각으로는, 내가 믿기로는, 外見上으로는」와 같은 韓國語의 副詞句·副詞節에 對應하고 있다.

- 2) 이 3개의 문장은 각각 다른 tense·aspect의 副詞를 포함하고 있는에도, 다같이 may가 올 수 있다는 것은, may가 그 副詞들의 制約下에 있지 않음을 뜻한다. 곧 tense·aspect의 副詞와 相關關係에 있는 것은 may를 除外한 述語動詞 表現이고, may는 命題內容 (a. They will be/are coming tomorrow. b. They came yesterday. c. They have come already)의 '대두리' 밖에 있는 것이다.

이 논문의 用例는 關係文獻³⁾ 으로부터 自由로이 借用하였으며, 그 文法性 判斷도 거기에 크게 依存하고 있다. 그러나, 이론적 기반만은 “命題와 modality의 峻別”이라는 「테두리」에 執着하고자 한다.

- 3) a. 백봉자. 1965. “우리말의 어찌씨 연구”(석사논문). 延世大學校 大學院.
- b. 朴權祐. 1971. “國語와 英語의 修飾構造의 比較” 「言語教育」 2號, 서울대학교 語學研究所, pp.61~81.
- c. 金敏洙. 1971. 「國語文法論」 一潮社, pp.146~160.
- d. 서정수. 1975. “국어 부사류어의 구문론적 연구” 「研究論文選(4) 現代國語文法」 啓明大學 出版部, pp.67~98.
- e. 李廷玟. 1975. “言語行爲에 있어서의 樣相構造” 「研究論文選(4) 現代國語文法」, 啓明大學 出版部, pp.301~309.
- f. 양인석. 1975. “韓國語 副詞의 意味” 「어학교육」 7집, 全南大學校 語學研究所, pp.15~32.
- g. 任洪彬. 1976. “副詞化와 對象性” 「國語學」 4, 國語學會, pp.39~60.
- h. 李恒默. 1976. “문장부사 ‘다행히’에 대하여” 「언어」 제1권 제2호, 한국언어학회, pp.126~139.
- i. 金京勲. 1981. “國語의 樣相構造에 대하여” 「開新語文 研究」 1輯, pp.15~29.
- j. Bellert, I. 1977. “On Semantic and Distributional Properties of Sentential Adverbs.” *Linguistic Inquiry* 6, pp.337~351.
- k. Cattell, R. 1973. “Negative Transportation and Tag Questions” *Language* 49, pp.612~639.
- l. Greenbaum, S. 1969. *Studies in English Adverbial Usage*. London: Longmans.
- m. Hooper, J.B. 1975. “On Assertive Predicates” *Syntax and Semantics* 4, ed. by John P. Kimball, New York: Academic Press, pp.91~124.
- n. Jackendoff, R. S. 1972. *Semantic Interpretation in Generative Grammar*. Cambridge, Mass: MIT Press, Chapter 3.
- o. Leech, G. and J. Svartvick. 1975. *A Communicative Grammar of English*. London: Longman.
- p. Qurik, R., S. Greenbaum, G. Leech, and J. Svartvick. 1972. *A Grammar of Contemporary English*. London: Longman, Chapter 8.
- q. Schreiber, Peter. 1971. “Some Constrains on the Formation of English Sentence Adverbs” *Linguistics Inquiry* 2, pp.83~101.
- r. Thomason, R. and R. Stalnaker. 1973. “A Semantic Theory of Adverbs” *Linguistic Inquiry* 4, pp.195~220.

II. 文章副詞의 分類

副詞은 大別하여 命題의 안쪽에 있는 것과, 命題의 바깥쪽에 있는 것으로 二分할 수 있다. 命題의 안쪽에 있는 副詞(命題內 副詞)은 命題의 일부를 形成하고, 命題의 바깥쪽에 있는 副詞(命題外 副詞)은 命題에 대한 modality를 표명할 뿐, 命題內容의 增減에는 결코 관여하지 않는다. 文章副詞은 바로 命題外 副詞로서 modality만을 표현하는 것이다.

Greenbaum도 文章副詞을 “attitudinal disjuncts”(態度離接詞)라고 定義하고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In general, they (= attitudinal disjuncts) express the speaker's attitude to what he is saying, his evaluation of it, or shades of certainty or doubt about it.”⁴⁾

이 설명에서, Greenbaum은 話者의 心的態도의 樣式으로 (1)「명제내용에 대한 評價註釋」과 (2)「명제내용이 일어나는 確率」을 들고 있는데 이것도 文章副詞의 意味的 分類基準으로서 중요한 示唆을 던지는 말이며, 傳統文法時代의 taxonomy에 보이는 無法性으로부터 보다 體系的인 分類로 지향하는 길을 開拓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 까닭은, 이를테면 傳統文法家 Kruisinga는 그의 ‘sentence adverbs’⁵⁾에 fortunately, wisely를 비롯하여 frankly, briefly(Greenbaum의 이른바 ‘style disjuncts’) 등을 포함시키면서도, probably, possibly는 除外시키고 있기 때문이다.

文章副詞의 분류에 있어서는 (1) 形態에 의한 분류(이를테면, 對應하는 形容詞類의 有無 또는 形態的 特徵에 의한 것)⁶⁾ (2) 意味的 內容에 의한 분류의 두 가지 接近方式이 可能하며, 또한 意味內容에 의한 分類는, 한번 더, Epistemic(認識的) 類群과 Attitudinal(態度的) 類群으로 下位區分할 수 있다.⁷⁾

그러나 여기에서는 Bellert를 따라, 命題外 副詞인 文章副詞가, 命題와 어떤 관계를 가

4) Sidney Greenbaum. 1969. *Studies in English Adverbial Usage*. London: Longmans, p.9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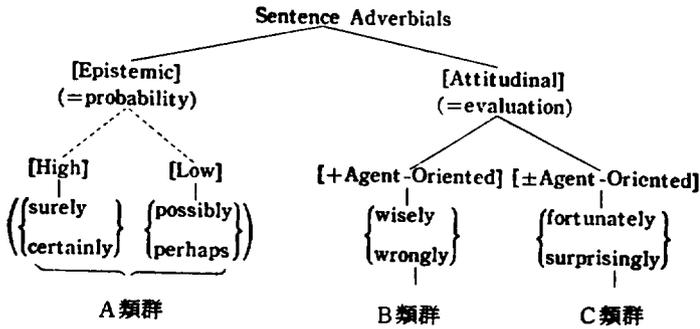
5) cf. Etsko Kruisinga. 1931. *A Handbook of Present-day English*. Groningen: Noordhoof, Part II-3.

6) 形態에 의한 分類로는 Greenbaum의 것이 매우 精巧・嚴密하다. cf. Greenbaum, *op. cit.*, § 5.1. ff.

7) 이 方式으로 分類한다면 다음의 分類圖를 얻을 수 있다. 興味로운 것은 이 分類圖를 그대로 平行移動하면 韓國語 文章副詞의 分類圖가 된다는 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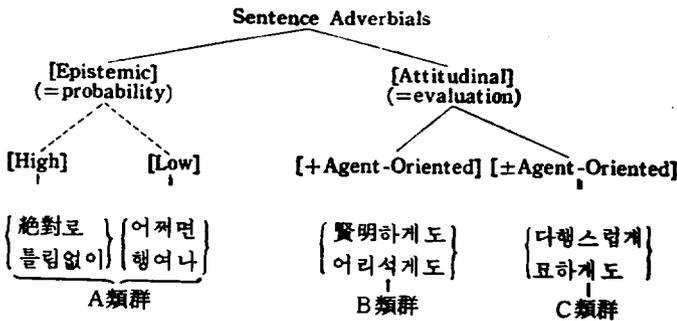
지고 있으며, 命題를 어떻게 修飾限定하고 있는가를 考察하기 위하여, 다음 네 가지로 나누어 보기로 한다. 그리고 韓國語의 경우에는 英語模型을 따르기로 한다.

英語의 文章副詞 分類圖



- A類群 : apparently, clearly, evidently, indeed, perhaps, possibly, probably, seemingly, surely,
- B類群 : correctly, cunningly, foolishly, justly, prudently, rightly, shrewdly, wisely, wrongly,
- C類群 : amusingly, astonishingly, curiously, fortunately, funnily, luckily, sadly, surprisingly, tragically,

韓國語의 文章副詞 分類圖



- A類群 : 절대로, 반드시, 아마, 분명히, 틀림없이, 확실히, 어쩌면, 행어나, 혹하면, 모름지기....
- B類群 : 현명하게도, 어리석게도, 비겁하게도, 잔인하게도, 멍청하게도, 멋없이, 친절하게도, 건방지게도, 용감하게도, 버릇없이, 연약하게도
- C類群 : 다행히도, 불행히도, 묘하게도, 불쌍하게도, 애석하게도, 공교롭게도, 가엾게도, 섭섭하게도, 우습게도, 우스꽝스럽게도, 통쾌하게도, 뜻밖에도, 놀랍게도

(3) 文章副詞의 分類

a. 價値判斷의 副詞

fortunately, luckily, happily, significantly, surprisingly, to our surprise, regrettably, to my regret, unfortunately, unbelievably, not surprisingly, oddly enough, strange to say, interestingly enough,

다행히(도), 다행하게도, 운수 좋게, 재수 좋게, 의미심장한 점은, 놀라게(도), 유감스럽게(도), 섭섭하게(도), 가없이, 하염없이, 불운하게(도), 불행하게(도), 불행히(도), 공교롭게도, 믿을수 없게도, 당연히, 당연하게도, 이상하게도, 또한 얘기이지만, 재미있는 얘기이지만, 기쁘게(도), 이상하게(도),

b. 眞偽判斷의 副詞

perhaps, maybe, possibly, probably, certainly, surely, apparently, evidently, very likely, clearly, undoubtedly, unquestionably, no doubt, in my opinion, in my estimation, in all likelihood, to be sure,

아마, 어쩌면, 행여나, 글썽, 혹하면, 혹시, 혹간, 설혹, 심중팔구(는), 확실히, 틀림없이, 응당, 반드시, 기필코, 분명히, 명백히, 뚜렷이, 마땅히, 그럴듯한 것은, 그럴싸한 것은, 똑똑히, 의심할 여지없이, 의심할 나위없이, 물론, 나의 생각으로는, 어쨌든, 과연, 결단코, 필경, 생각전대, 짐작하전대, 얼른 보기에,

c. 發話行爲의 副詞

honestly, seriously, strictly, truthfully, candidly, confidentially, briefly, in short, in all fairness, to be blunt, to tell you the truth, generally speaking, put frankly, if I may ask you, If I may say so,

정말, 정직하게 털어 놓아서, 심각한 얘기이지만, 진지하게 말해서, 기탄없이 말하자면, 숨김없이 말하자면, 엄격하게 말하자면, 정직한 이야기가, 솔직히 말해서, 비밀이지만, 요컨대, 결국, 공정한 얘기가, 공정히 말해서, 분명스러운 표현이지만, 사실은, 일반적으로, 일반적인 얘기가, 대개, 대저, 솔직히 말한다면, 부탁하전대, 제발 바라전대, 이틀테면, 모름지기, 어쨌든, 은밀한 이야기가,

d. 領域指定의 副詞

technically, theoretically, basically, fundamentally, norminally, officially, superficially, in principle, by definition,

전문적·기술적으로는, 이론상으로는, 본질적으로 따진다면, 근본적으로는, 명목상으로는, 공식적으로는, 표면상으로는, 파상적으로 생각한다면, 이상론을 편다면, 원리상으로는, 정의상(定義上),

이 分類는, 이미 말한바와 같이, Bellert(1977)⁷⁾을 따른 것이지만, 그 論據와 名稱은 약간 差異가 있다. Bellert는 a.로부터 d.까지를 각각 "evaluative adverb" (評價의 부사), "modal adverb" (絃法的 부사), "pragmatic adverb" (話用論的 부사), "do-

7) cf. I. Bellert, 1977. "On Semantic and Distributional Properties of Sentential Adverbs" *Linguistic Inquiry* 6, pp. 337~351.

main adverb" (領域의 부사) 라고命名하고 있다. 한편 Jackendoff는 a.b.c.를 未分化狀態로 놓아둔 채 "speaker-oriented adverb"(話者指向的副詞)의 명칭 아래 一括하였으며, d.는 Jackendoff의 視野에 없는 것 같다.⁸⁾ 그 밖에 이미 言及한 바 있는 Greenbaum(1969)과, 또 그것에 準據하는 Quirk, et al.는 a.b.d.를 "attitudinal disjuncts"(態度離接詞)의 類群에 포함시키고, c.는 따로 "style disjuncts"(文體離接詞)의 類群으로 분리시켜 놓고 있다.⁹⁾

위에서 보인 文章副詞의 分類는, 그 骨格에 있어서 韓·英 兩語에 똑같이 該當될 것이다. 그 까닭은, 이 分類가 意味機能的인 基盤에 의거하고 있기 때문이다. 人間言語에 있어서의 普遍性은 역시 意味의 世界에서, 보다 깊고, 보다 널리 찾을 수 있으며, 그렇기 때문에 比較의 基準도 역시 意味의 世界에서 求하고, 然後에 個別言語의 統辭面에서 어떻게 具現되어 있는가를 살피는 것이 올바른 手順일 것이다.

이러한 統辭論的인 具現방식에 있어서, 그 同異를 찾는 데 중요한 "실마리"가 되는 것은 語順일 것이다. 따라서, 앞으로, 命題外 副詞(modality를 나타내는 副詞)와 命題內 副詞를 區別하는 論據를, 語順을 포함하는 言語形式에 찾아볼 것이며, 관찰의 對象도 주로 이러한 二分法의 原理를 명확하게 例證할 수 있는 副詞類로 제한할 것이다. 즉, 價値判斷의 副詞, 眞僞判斷의 副詞 및 發話行爲의 副詞등, 이른바 speaker-oriented adverb(話者指向的副詞)¹⁰⁾에 그 焦點을 두고자 한다.

8) cf. R. S. Jackendoff. 1972. *Semantic Interpretations in Generative Grammar*. Cambridge, Mass.: MIT Press, Chapter 3.

9) cf. Quirk, Greenbaum, Leech, and Svartvick. 1972. *A Grammar of Contemporary English*. London: Longman, pp.508~520.

10) 「話者指向」이란, 副詞나 叙法助動詞의 意味가, 命題가 보이는 事態에 대한 "話者의" 心的態度 내지 論評을 가리키는 경우이며, 「主語指向」이란, 副詞나 叙法助動詞의 意味가, "主語에 관한" 客觀的 事實(이라고 話者가 생각하는 것)을 전하는 內容인 경우이다. (cf. Jackendoff. *op.cit.*, Ch.3. Also see: Palmer. 1974. *The English Verb*. London: Longman, 5.1.3.) 例컨대

(a) 話者指向的 副詞 (= 문장부사)

① John will *probably* fail. (= *I think it probable that John will fail.*)

② *Happily*, John won the game. (= *I am happy that John won the game.*)

③ *Frankly*, John lied to Bill. (= *I am being frank in saying that John lied to Bill.*)

(b) 主語指向的 副詞 (= 양태부사)

① John *clumsily* dropped his cup of coffee. (= *It was clumsy of John to drop his cup of coffee.*)

② John told the story to Bill *frankly*. (= *John was frank in telling the story to Bill.*)

③ The doctor examined John *carefully*. (= *The doctor was careful in examining John.*)

Ⅲ. 價値判斷의 副詞

Ⅲ - 1. (價値判斷 副詞의 性質) 價値判斷의 副詞에는 다음과 같은 두드러진 性質이 있다.

- (1) 가치판단 부사는 Tense · Aspect 의 테두리 바깥에 있다.
- (2) 가치판단 부사는 敘實的 前提 (Factive Presupposition) 를 가지고 있다.
- (3) 가치판단 부사는 瞬間的 現在時의 價値判斷이다.
- (4) 가치판단 부사의 作用域은 命題內容 전체이다.

Ⅲ - 1.1. 價値判斷의 副詞는 어떤 事態에 대한 話者의 評價, 價値判斷을 서술한다. 더우기 그 價値判斷은 '發話時' 라는 瞬間的 現在時에 있어서만 有效하다. 價値判斷의 副詞가 modality 表現이라고 하는 理由가 여기에 있는 것이다. 그 明確한 證據로서, 무엇보다도 Tense · Aspect 의 테두리 밖에 있어서, 그 Tense · Aspect 가 지시하는 時點으로부터 自由로운 立場에 있다. 이를테면, 다음과 같은 例文을 찾아 볼 수 있다.

- (4) a. *Unfortunately*, I will lose my bet after all.
재수 나쁘게, 나는 결국 그 내기에 지게 될거야.
- b. *Unfortunately*, it's snowing.
재수 나쁘게, 눈이 내리고 있군.
- c. *Unfortunately*, he's already arrived.
재수 나쁘게, 그는 벌써 도착했어.
- d. *Unfortunately*, he forgot his maps.
재수 나쁘게, 그는 지도를 잊었어.

Unfortunately 와 「不幸하게도, 不運하게도, 공교롭게 (도), 運 나쁘게, 재수 나쁘게」 등의 韓英語의 副詞는 Tense · Aspect 가 지시하는 時點과는 關係없이, 發話時와 동시적인 現在時를 含意하고 있다. 따라서, *Unfortunately* 나 「재수 나쁘게」나 모두, 命題成分인 Tense · Aspect 의 制約下에 있는 것이 아니라, 命題의 테두리 밖에 있음을 알 수 있다.

Ⅲ - 1.2. 價値判斷의 副詞에는 敘實的 前提 (Factive Presupposition)¹¹⁾ 가 있다. 일반적으로 話者가 어떤 命題內容에 대하여 價値判斷을 내릴 때, 話者는 그 命題內容이 참 (眞) 임을 前提하고 있다. 이를테면 (5-a) 는 (5-b) 가 참임을 前提하고 있다.

11) 이 "敘實的 前提" 는 眞偽判斷의 副詞에는 찾아볼 수 없는 實質이다.

- (5) a. *Unluckily*, he was killed in the traffic accident.
 不運하게도, 그는 交通事故로 죽었다.
 b. He was killed in the traffic accident.
 그는 交通事故로 죽었다.

곧, (5-a)가 참이면, 반드시 (5-b)도 참이라는 相互關係가 있다(그 逆은 成立되지 않지만).

이러한 含意關係가 成立하는 것은, 話者가 發話時點에 앞서서 이미 「그가 交通事故로 죽었다」라는 事態를 把握하고, 그 다음에 話者는 그 事態에 대한 價値判斷, 곧 그것을 不運으로 보는 가치판단을, 發話의 時點에서, 내리고 있기 때문이다. 그 事態의 파악은 發話時點以前에 이미 있었지만, 그 事態를 不運으로 보는 話者의 價値判斷은 發話時點에 이르러, 비로소 내려지고 있음에 注目하여야 할 것이다.

이러한 含意關係는 價値判斷의 副詞가 否定文과 共起하는 경우에도 해당된다. 이 현상도 價値判斷의 副詞가 “命題內 否定”의 테두리 밖에 있음을 뜻한다. 이를테면, (6-a)는 (6-b)를 含意한다.

- (6) a. *To my surprise*, they didn't appoint him, and they didn't even interview him.
 b. They didn't appoint him, and they didn't even interview him.

*To my surprise*는 *surprisingly*와 마찬가지로 價値判斷의 부사적 표현으로서, *modality*를 나타낸다. 이에 對應하는 「놀랍게도」라는 國語表現도 勿論 *modality* 표현이다. 「놀랍게도, 任命은 고사하고, 面談조차 아니 하였다。」라는 것이 참(眞)이면, 「任命도 아니 하였고, 面談조차 아니 하였다」도 참(眞)인 것이다. 곧, (6-b)는 (6-a)의 命題部分에 對應하는 것으로서, 命題內容이 ‘否定文(곧, 否定的 命題)’이라 하더라도, 그 否定의 효과는 命題의 테두리 안에 머물고, 價値判斷을 보이는 *modality* 表現까지는 미치지 못함을 나타내고 있다.

Ⅲ - 1.3. 일반적으로 命題內容 部分은 發話時 以前에 이미 話者의 心理 속에 존재하며, 그러기 때문에, 話者는 發話時點에서 그것을 客觀的 敘述로서 提示하는 것이 가능한 것이다. 이렇듯 客觀的 敘述로서 제시되는 部分이 바로 命題內容이 된다. 반면에, 發話의 時點에서 話者의 마음을 스쳐가는 心的態度는 瞬間的 現在時의 것이기 때문에 客體化할 수 없고, 따라서 命題의 一部를 형성하지 못한다. 이런 곳에 *modality*와 命題를 峻別하여야만 하는 理由가 있는 것이다.

이렇게 價値判斷의 副詞는, 發話時라는 瞬間的 現在時에 있어서의 心的態度이기 때문에, 다음과 같은 Leech & Svartvik의 例文은 問題點을 안고 있다고 보아진다.

- (7) a. *To my regret*, he did not accept our offer.
 b. *I regretted that* he did not accept our offer.

Leech & Svartvik는 b.는 a.의 paraphrase 라고 말하고 있다.¹²⁾ 그러나 嚴密한 뜻에서는, *To my regret*가 發話時點인 現在時에 있어서의 話者의 心的態度(곧, modality 表現)인데 반하여, 過去時制로 되어있는 *I regretted that*...는 modality 表現이라고 볼 수 없다. 이 점은 이와 對應하는 國語表現에도 反映된다.

- (8) a. 애석하게도, 그는 우리들의 提議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b. 나는 그가 우리들의 提議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을 애석하게 생각하였다.

(8-a)는 話者가 發話時點에서 “애석하다고 생각하고 있음”을 나타내고, (8-b)는 提議를 拒絕한 當時에 “애석하게 생각하였음”을 뜻한다. 곧, (7-a) (8-a)의 命題內容은 he did not accept our offer 라는 部分이지만, (7-b) (8-b)의 命題部分은 文 全體이다. 이렇듯 *To my regret*가 含意하는 時點은 過去가 아니라, 發話時라는 瞬間的 現在時이기 때문에, 그 paraphrase는 regret를 現在時制로 한 “*I regret that* he did not accept our offer”로 訂正하여야 할 것이다. 이것과는 別個의 문제이지만, *I regret*는 瞬間的 現在時에도 나타날 수 있지만, 또한, 경우에 따라 “持續的 現在”를 뜻하기도 하므로 問題가 된다. 곧, 「애석하게 생각하고 있다」라는 時間幅을 지닌 國語表現에 對應하는 *I regret*는 “持續的 現在”를 含意하므로 modality 表現이라고 할 수 없다.¹³⁾ 그러나 「애석하게

12) cf. Leech and Svartvik. 1975. *A Communicative Grammar of English*. London: Longman, p.138.

13) 이와 關聯하여 例文(1)은 ambiguous (瞬間的 現在인지, 持續的 現在인지 不明)하지만 例文(2)는 그렇지 않다. (持續的 現在론)

(1) *I think* Ann is honest. (2) *Max thinks* Ann is honest.

이 曖昧性은 주어가 1入稱이나, 3入稱이나 하는데 달려 있다. 韓國語에서는 이 점이 統辭的 形態에도 投影된다.

1') 나는 Ann이 정직하다고 a) 생각한다.
 b) 생각하고 있다.
 2') Max는 Ann이 정직하다고 a) ?지금 생각한다.
 b) 생각하고 있다.

(2'-a)가 不自然스러운 것은, Max라는 第3者의 瞬間的 現在의 思考를 話者가 알 까닭이 없기 때문이요, 반면에 (2'-b)가 성립하는 것은, 持續的 現在이기 때문에, 第3者의 思考이지만 그것을 探知할 機會가 있었기 때문이다.

생각한다. 애석하다」라는 國語表現에 對應하는 I regret 는 瞬間的 現在를 含意하는 것으로서, modality 表現임이 분명하다.

Ⅲ - 1.4. 일반적으로 modality 의 作用域은 命題內容의 全體에 미친다. 價値判斷의 副詞도 例外가 아니다. 그런데

(9) a. *Fortunately, I think he's already gone.*

다행히, 그는 가버렸다고 생각하네.

b. *Fortunately, it's possible that Mary will remember to bring the fruit salad.*

Mary가 잊지 않고 과일 샐러드를 가져오리라는 것은 다행히도 있을 수 있는 일이야.

와 같은 경우에는, *fortunately* 의 修飾限定의 作用域은 a. 와 b. 사이에 差異가 있다. a. 에 있어서는 *he's already gone* 部分만이 그 作用域인데 反하여, b. 에 있어서는 *It's possible* 以下 全部가 그 作用域이다.

이러한 差異는 I think 와 *It's possible* 사이의 意味機能의 차이에서 유래한다. I think 는 modality 表現인데 反하여, *It's possible* 는 modality 表現이 아니기 때문이다. I think 는 *fortunately* 와 더불어 同一한 命題 "*he's already gone*" 을 作用域으로하여 그것을 修飾限定하고 있다. 이렇게 두개의 modality 가 共起할 수 있는 것은, 그것들이 다 같이 話者의 認知作用에 관련하는 同質性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하여 *It's possible* 는 modality 를 나타내지 않고, *that* 以下와 함께 또 하나의 命題를 형성하고 있다. 이 점은 이와 對應하는 國文을 분석하여 보아도 알 수 있다. (9-a) 에 있어서는 話者는 「그가 이미 가버렸다」라는 事態를 “幸運이다” 라는 생각으로 捕捉하고 있는데 대하여, (9-b) 에 있어서는 「Mary가 잊지 않고 과일 샐러드를 가져오리라」라는 事態 自體가 아니라 「그러한 事態가 있을 수 있다」라는 可能性을 “幸運이다” 라는 생각으로 捕捉하고 있는 것이다.

이와 마찬가지로, *It seems* 는 modality 를 표시하지만, *It's likely* 는 modality 를 나타내지 않고, 命題의 一部를 형성한다.

(10) a. *Unfortunately, it seems he forgot his maps.*

不運하게도, 그는 地圖를 잊은 것 같다.

b. *Unfortunately, it's likely that I will loose my bet after all.*

결국 내가 내기에 지게 되리라는 것은, 運 나쁘게도, 있을 직해.

I think, *It seems* 는 modality 를 보이지만, *It's possible*, *It's likely* 는 modality 를 표명하지 않는다는 것은 附加疑問 (Tag Question) 의 表現形式으로도 증명된다.

- (11) a. *I think this car needs a tune-up, doesn't it?*
 이 車는 엔진 調整이 필요한 것 같군요, 그렇죠?
 b. *It seems that this meeting will never end, will it?*
 이 會議은 限이 없을 것 같군요, 그렇지요?
 c. *It doesn't seem to me like it's gonna rain, is it?*
 비가 올 것 같지는 않군요 그래.
- (12) a. * *It's possible we'll be arriving right on time, won't we?*
 b. * *It's likely that they've left the phone off the hook, haven't they?*

(11)의 各文은 모두 附加疑問이 從節의 主語·述語에 呼應함을 보여주고 있다. 특히 (11-c)에 있어서, 附加疑問이 肯定形으로 되어있는 사실은, 主節의 not가 從節로부터 上昇變形하였음을 示唆하고 있다.¹⁴⁾ 이 말은 構造上으로는 seem를 否定하는 形式을 취하면서도 기실, “否定的 modality”를 省略하지 않음을 보이는 것이다.

한편, (11)과는 對照적으로, (12)의 各文에 있어서는 附加疑問이 從節의 主語·述語와 呼應하지 못함을 나타내고 있다.

따라서, *I think*, *It seems to me*는 modality를 표시하지만, *It's possible*, *It's likely*는 modality를 표시하지 않고, 命題의 一部를 표시한다는 것은 疑心의 여지가 없을 것 같다. 이러한 表現에 共通되는 점은, 모두가 眞偽判斷을 보인다는 데 있다. 그러나 주목하여야 하는 差異는, 發話와 同時적으로 일어난 主觀的 表現이나, 또는 發話時에 앞서서 客體化된 客觀的 表現이나, 하는 데 있는 것이다.

Ⅲ - 2, (關係詞節과의 等價性) 英語에 있어서 價值判斷의 副詞를 非制限的 關係詞節로 paraphrase 하는 것은 극히 一般的인 傾向이다. 이를테면 (13-a)는 (13-b)로 paraphrase 할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다.

- (13) a. *Surprisingly*, John objected to the plan.
 b. John objected to the plan, *which is surprising*.

그러나 여기에서도 역시 命題와 modality를 嚴格하게 區別한다면, (13-a)는 命題가 하나이지만, (13-b)는 命題를 두 개 갖고 있다고 말하여야 할 것이다. 그 까닭은 *surprisingly*는 modality 表現이지만, (13-b)의 *which is surprising*는 또 하나의 獨立된 命題

14) cf. 문병태·황소부, 1979. “Not 이동변형의 의미론적 해석” 『영미어문학』 7호. 한국영어영문학회 부산·경남지부, pp.61~78.

表現을 형성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 증거로, (13-b)는 두개의 主張의 焦點(assertion focus)을 갖고 있다. 곧 John objected to the plan 이 하나의 主張을 형성하는가 하면, which is surprising 도 또한 하나의 主張을 형성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13-a)의 surprisingly에는 主張의 焦點(assertion focus)이 오지 않는다. 主張의 焦點은 John 으로 시작되는 主節에 있으며 surprisingly 는 그 主張에 대한 話者의 發話時의 心的態度를 보이고 있을 뿐이다. 따라서 (13-a)와 (13-b)는 결코 等價的이라고는 말할 수 없다.

이와 같은 意味論的 觀察은, 그것을 뒷받침하는 統辭論的인 증거들이 있다. 그 證據의 하나는, 이를테면 (13-b)에 있어서, 그 非制限的 關係詞節 안에, 主節과는 別途로, 그리고 그 關係詞節만을 作用域으로 하는, modality 表現을 挿入할 수 있다는 사실이다. 다음 문장에서 undoubtedly 와 I believe 는 모두 modality 表現으로서, 話者의 發言時에 있어서의 眞僞判斷을 나타내고 있다.

(14) *Undoubtedly*, John objected to the plan, which *I believe* is surprising.

곧, I believe 는 主節과는 상관없는 modality 表現으로서, 그 作用域은 which is surprising 에만 미치고 있다. 이러한 사실로 부터 非制限的 關係詞節은 主節과는 獨立的인 命題內容을 형성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 따라서 which is surprising 을 surprisingly 와 等價的이라고는 말할 수 없는 것이다. 또 하나의 증거는 附加疑問에 나타나는 形態差異이다.

(15) a. * *Surprisingly*, John objected to the plan, didn't he?

b. John objected to the plan, *which is surprising*, { isn't it?
* didn't he?

(15-a)가 非文이 되는 까닭은, surprisingly 에 함축되어있는 敍實的 前提(Factive Pre-supposition)와, 附加疑問에 함축되어있는 話者의 確認的 態度 사이에, 衝突이 생기기 때문이다. 이미 III - 1.2. 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surprisingly 에는 敍實的 前提가 있다. 곧 「John 이 그 計劃에 반대하였다」라는 事態를 事實로 포착한 다음에, 發話時點에 와서 話者는 그 事態를 “놀랄만 한 것”이라고 評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附加疑問은 이 敍實的 前提(곧 命題內容)의 眞僞에 관한 話者의 確認的 姿勢를 나타내는 것이므로, surprisingly 와 附加疑問사이에는 矛盾이 생기는 셈이다. 이러한 相反하는 두 개의 異質的 modality 의 衝突이 (15-a)를 非文으로 만든 것이다.

또한, (15-b)의 附加疑問은 또 다른 論點을 浮刻시키고 있다. 이 附加疑問은 主節의 主語・述語에 呼應하지 않고, 關係詞節의 主語・述語에 呼應하고 있다. 이렇게 關係詞節이 附加疑問의 對象이 된다는 것은 關係詞節도 또한 主張的 命題를 형성함을 端的으로 표시하고있

는 것이다. 이러한 統辭의 構造에 비추어 보아도, 話者의 眞偽確認의 태도는 關係詞節을 향하고 있음이 뚜렷하며, 따라서 which is surprising 는, surprisingly 와는 달리, 命題內容을 구성하고 있다고 보지 않을 수 없다.

Ⅲ - 3. (It is Adj that ... 와의 等價性) 徐正洙교수는 그의 논문에서 文章副詞를 識別하는 방식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 이를테면

(16) 그이가 확실히 똑똑한 사람이다.

(17) 그이가 정말로 빨리 달린다.

에서 '확실히', '정말로'가 각각 '똑똑한', '빨리'를 修飾하는지, 아니면 文章全體를 修飾하는지는 명확하지 않는 것 처럼 보이지만, (16)이

(18) 그이가 똑똑한 사람임(이라는 것)이 확실하다.

로 變形될 수 있고, 앞 부분 곧 名詞節이 事實名詞化(Factive Nominalization)이면 '확실히'는 文章副詞로 확인된다는 것이다. 곧,

(19) 그이가 확실히 똑똑한 사람이다. → 그이가 똑똑한 사람임이 확실하다.

의 變換關係가 성립되고, "그이가 똑똑한 사람임"이 事實名詞化인 조건하에서는 '확실히'는 文章全體를 수식한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확실하다'가 「그이가 똑똑한 사람이다」라는 文章全體를 對象으로 풀이(predication)하고 있으므로 '확실히'도 문장 전체를 대상으로 限定(attribution)함이 증명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또한 (17)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20) 그이가 정말로 빨리 달린다 → 그이가 빨리 달린다는 것은 정말이다.

의 變換關係가 성립되면 '정말로'가 文章副詞로 확인된다. 그러나, 반면에 (16), (17)에서 '확실히', '정말로'가 바로 뒤에 오는 말을 修飾하고 있는 경우에는 위의 變換關係는 성립되지 못한다고 徐正洙교수는 말하고 있다.¹⁵⁾

英語에 있어서도, 價値判斷의 副詞는, 그것에 對應하는 形容詞가 존재하는 경우 It is Adj that ... 의 構文으로 paraphrase 될 수 있다는 說이 있다.¹⁶⁾ 이를테면, (21-a)와 (21-b)는 paraphrase의 關係에 있다는 것이다.

15) cf. 서정수. 1975. "국어 부사류어의 구문론적 연구" 「研究論文選(4) 現代國語文法」 啓明大學 出版部, pp.73~75.

16) cf. S. Greenbaum. 1969. *Studies in English Adverbial Usage*. London: Longmans.

c. *I'm not sure acupuncture really works, { * am I?
does it?*

난 잘 모르지만, 鍼術은 정말 듣나요?

I think, I imagine, I'm (not) sure 는, 定義上, modality 表現이다. 따라서, 命題表現을 형성하는 것은 從節 部分임을 알 수 있다. 그리고 附加疑問은 命題의 主語·述語에 呼應하는 것이지, 形式的으로만 主節의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modality 表現의 主語·述語에 呼應하지 않는다.

이러한 附加疑問의 呼應關係는 다음과 같은 複合 modality 表現인 경우에도 해당된다.

(24) *I find it difficult to believe that Harry stayed sober, didn't he?*

이 例文은 Cattell의 論文¹⁷⁾으로부터 引用한 것으로서, Cattell의 文法性 判斷에 立脚한다면, (곧, 附加疑問 *didn't he?* 는 *Harry stayed sober* 와 呼應하고 있다는 사실에 비추어) 이 문장의 命題는 *Harry stayed sober* 의 部分뿐이며, *I find it difficult to believe* 는 modality 表現을 형성한다는 結論에 도달하게 된다. 이 結論은, 실제적으로, *I find it difficult to believe* 가 價値判斷의 副詞 'unbelievably' 와 等價的이라는 사실에 비추어서도 納得될 수 있을 것이다.

이 結論의 傍證으로서, (24)를 (25)에 對比시켜보면, 이러한 複合 modality 表現의 성질은 더욱 두드러진다.

(25) *I find it is difficult to believe that Harry stayed sober, isn't it?*

(24)와 (25)의 形態上的 差異는 두 군데에 있다. 하나는 *I find it difficult* 와 *I find it is difficult* 와의 差異이고, 또 하나는 附加疑問에 있어서의 *didn't he?* 와 *isn't it?* 와의 差異이다. 附加疑問이 이렇게 바뀌어진 것은 (24)와 (25)의 命題成分과 modality 成分의 區劃線이 이미 移動하였음을 뜻한다. (25)의 *I find it is difficult to believe* 는 이제 modality 표현이 아니고, modality 표현은 *I find* 뿐이다. 定形 be 動詞의 挿入으로, *it is difficult to believe* 以下가 命題를 형성하게 된 것이다. 이것을 具體적으로 살펴보면, (24)의 文意는 『믿을 수 없게도, Harry는 醉해 있지 않았어요, 그렇지요?』이지만, (25)의 文意는 『Harry가 醉해 있지 않았다는 것은 (一般에게) 믿기 어렵다고 생각되는데, 그렇지 않은가요?』이다. 곧, 同意 確認을 求하는 部分이 서로 다른 것이다. 그리고 이것은 命題成分이 달라졌음을 뜻하기도 한다.

이와 같이, 附加疑問의 呼應關係로부터도 (25)의 modality 表現은 *I find* 뿐이고, (24)

17) R. Cattell. 1973. "Negative Transportation and Tag Questions" *Language* 49, pp.612~639.

의 modality 表現은 I find it difficult 전부임이 분명하다. 또한, 이러한 Cattell 의 判斷으로부터, 같은 型인 I think it unfortunate도 modality 表現일 것임은 쉽게 推論할 수 있다.

다만 I think it unfortunate that ...의 文에는 附加疑問이 올 수 없다.

- (26) *I think it unfortunate that Mary is too busy to see you, { * isn't it?
* isn't she?*

그러나 이것은 全然 다른 理由 때문이다. 앞에서 이미 (17-a) * Surprisingly, John objected to the plan, didn't he? 가 非文이 되는 까닭을 surprisingly 의 『敍實의 前提』와 附加疑問의 『確認의 態度』와의 衝突때문이라고 말한 바 있거니와, I think it unfortunate that ...에 附加疑問이 올 수 없는 것도 꼭 같은 理由때문이다. 그리고 똑같은 理由로 (27)도 있을 수 없다.

- (27) * Unfortunately, Mary is too busy to see you, isn't she?

(26)과 (27)이 이렇게 완전히 平行하는 現象임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요컨대, 同一한 命題에 대하여, 한편에서는 그 眞實性을 前提로 하면서, 다른 한편에서는 그 眞實性의 確認을 求한다는 것은 矛盾이기 때문에 附加疑問은 올 수 없는 것이다. (換言하면, 敍實의 前提를 含意하는 modality 表現과 附加疑問 두 가지 중에서 擇一하여야 하는 것이다.)

Unfortunately와 I think it unfortunate 사이에 볼 수 있는 附加疑問의 이러한 平行現象은 곧 I think it unfortunate의 modality 表現으로서의 資格을 증명해 주는 셈이 된다.

英語의 I think it difficult to believe와 같이 modality 表現이 '節'의 形式을 취하는 것은 韓國語에 있어서 도리어 매우 두드러진 現象이다. 이를테면,

- (28) 상상하건대 그 都市가 아름답겠다.

에서 '상상하건대'는 '내가 상상하건대'와 같은 副詞節이다. 그 밖에 『내가 짐작하건대, 믿을 수 없는 이야기이지만, 묘한(재미있는) 이야기이지만, 얼른 보기에, 그럴듯한 점은, 의심할 나위 없이, 정직하게 털어놓아서, 공정히 말해서, 엄격하게 말한다면, 솔직히 말해서』 등등, 韓國語의 副詞節은 不知其數라 할 수 있다.

IV. 眞偽判斷의 副詞

眞偽判斷의 副詞는, 命題內容의 眞偽의 程度에 관하여, 話者가 發話時點에서 내리는 查定的 判斷을 나타낸다. 따라서 命題의 “틀” 바깥에 있는 modality 表現이다. 眞偽判斷의 副詞에서, modality 表現一般에 공통되는 여러가지 性質을 찾아 볼 수 있지만, 그 중 두드러진 性質을 든다면 다음과 같다.¹⁸⁾

- (1) 眞偽判斷의 副詞는, 가치판단의 부사와 마찬가지로, “命題의 否定”의 作用域內에서 일어나지 않는다.
- (2) 眞偽判斷의 副詞는, 가치판단의 부사와 마찬가지로, 疑問文內에서는 일어나지 않는다.
- (3) 眞偽判斷의 副詞는, 가치판단의 부사와는 對照的으로, 一定한 條件이 갖추어지면 附加疑問文을 거느릴 수 있다.
- (4) 意味上 否定을 나타내는 眞偽判斷의 부사는 존재하지 않는다.
- (5) 서로 矛盾되지 않는 限, 하나의 문장 가운데 두 개 이상의 modality 表現이 累積的으로 나타날 수 있다.

IV - 1. (命題內 否定과의 關係) 일반적으로 modality 表現은 “命題內 否定”의 作用域內에서는 나타나지 않는 법이지만, 眞偽判斷의 副詞도 역시 “命題內 否定”의 作用域內에서는 나오지 않는다. Possibly를 例로 들면, 다음과 같은 變化表를 생각할 수 있다.

- (29) a. *Possibly they can't leave early.*
 b. *They possibly can't leave early.*
 c. *They can possibly not leave early.*
 d. *They can't leave early, possibly.*

이 모든 例는 'possibly'가 not의 作用域 外에 있음을 보이고 있다. 否定詞는 일반적으로 그 位置로부터 뒷쪽 (곧, 右側) 部分을 作用域으로 삼는다. (29-a,b,c.)에 있어서 'possibly'는 not에 先行하고 있기 때문에 not의 作用域 바깥에 있는 셈이다. (29-d)에

18) 李植默 교수는, 文章副詞의 주요한 '統語의 特性'을 다음과 같이 들고 있다.

- a. 문장부사는 명명문에 쓰일 수 없다.
- b. 문장부사는 의문문에 쓰일 수 없다.
- c. 문장부사는 양태부사와는 달리, 부정문의 문두에 올 수 있다.
 (cf. 李植默. 1976. "문장부사 '다행히'에 대하여" 『언어』 제1권 제2호, 한국언어학회, p.126)

어서는 'possibly'는 not 보다 뒷쪽에 나타나지만, 쉼표 (comma) · 억양(intonation)의介在로 말미암아, not의 作用域은 comma를 넘지 못하며, 따라서 'possibly'는 그 作用域外에 있다. 만약 comma · intonation이 介在하지 않으면 'possibly'는 not의 作用域에 들어가게 되어 非文이 되어버린다.

다음의 경우에도 같은 原理가 作用하고 있다.

- (30) a. * *No one possibly can leave early.*
b. * *Never can they probably leave early.*

이 두 문장이 非文인 까닭은, 否定的 作用域이 문장 전체에 미치고 있어서, 'possibly' 'probably'도 그 域內에 들어가기 때문이다.

眞僞判斷의 副詞는 否定的 作用域內에 나타날 수 없을 뿐더러, 일반적으로는 不確定的 文脈(uncertain context) 중에서도 나타날 수 없다. 다음의 例文이 그것을 보여 주고 있다.

- (31) a. * *They can't probably leave early.*
b. * *I didn't think they could probably leave early.*
c. * *Can they probably leave early?*
d. * *I asked whether they could probably leave early.*
e. * *If they can probably leave early, they will do so.*
f. * *Only on Sundays can they probably leave early.*

a.와 b.는 否定辭 not의 作用域內에 있기 때문에 不確定的 文脈을 형성하며, c.와 d.는 각각 直接·間接 疑問文內에 있기 때문에, e.는 條件節內에 있기 때문에, 그리고 f.는 only와 같은 否定的 含蓄을 갖는 要素의 作用域內에 있기 때문에, 이 모든 文은 不確定的 文脈을 형성하고 있다. 따라서 'probably'와 같은 眞僞判斷의 副詞는 그러한 文脈속에서는 나타날 수 없는 것이다.

IV - 2. (疑問文의 作用域) 眞僞判斷의 副詞는, 가치판단의 부사와 마찬가지로, 疑問文 가운데 나타날 수 없다. 역시 modality 表現이기 때문이다.

- (32) a. * *Do they surely want him to be elected?*
b. * *Did Frank probably beat all his opponents?*
c. * *Who certainly finished eating dinner?*
d. ?? *What has Charley evidently discovered?*

이 문장들이 不自然스러운 것은 두 개의 異質的인 modality가 서로 衝突하기 때문이다. 곧

surely, probably, certainly, evidently 등이 뜻하는 modality와, 疑問文이 含意하는 modality (곧 疑問法) 사이에 衝突이 있는 것이다. 眞僞判斷의 副詞는 命題의 眞僞 程度에 대한 查定的 判斷을 나타내는 것이므로, 話者는 그 부사의 固有的인 眞僞 程度에 따라, 命題內容의 眞理值를 主張하고 있는 셈이다. 그러나 이와는 반대로, 疑問法은 命題의 眞僞의 不明을 前提하고서 그 眞僞值를 求하고 있는 것이다. 양쪽 모두 同一命題를 作用域으로 하면서도, 그 命題에 대한 modality (心的態度)는 相反하여 서로 容納되지 않는다. 眞僞判斷의 副詞는, 程度의 높낮이는 있을지언정, 命題의 眞理值를 主張하고 있는 데 반하여, 疑問法은 근본적으로 命題가 참이나 거짓이냐를 問題삼고 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衝突은 다음의 문장에서는 찾아볼 수 없다.

- (33) a. Did Frank *easily* beat all his opponents?
 b. Who *completely* finished eating dinner?
 c. What has Charley *suddenly* discovered?

이들 疑問文에는, 眞僞判斷의 副詞 대신, 각각 樣態의 부사, 強意의 부사, 頻度의 부사가 들어가 있다. 이 문장들이 自然스러운 까닭은 여기에는 疑問文이라는 한 개의 modality 만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疑問法이 含意하는 modality는 命題全體를 作用域으로 삼지만, 이들 副詞들은 命題의 일부를 형성하고, 命題의 “를” 안에 安住하고 있으므로 아무런 衝突도 없는 것이다.

IV - 3. (附加疑問과의 關係) 眞僞判斷의 副詞는, 어떤 일정한 條件이 갖추어지면, 附加疑問을 거느릴 수 있다. 이 사실은 “價値判斷의 副詞”의 경우와는 對照的이다. 이러한 相反的인 現象은 “敍實의 前提(factive presupposition)”¹⁹⁾의 有無가 원인이 되어 惹起되고 있다.

- (34) a. Frank *probably* beat all his opponents, *didn't he*?
 Frank는, 아마도, 상대방을 모두 무찌른 것 아닐까요?
 b. Max *certainly* has finished eating dinner, *hasn't he*?
 Max는, 틀림없이, 식사를 끝냈을 거예요, 그렇지 않았을까요?
 c. Charley *evidently* discovered a flaw in my argument, *didn't he*?
 Charley는, 분명히, 나의 논설의 약점을 알아챈 것 같군요.

이 문장들은 모두 두 개의 modality를 함유하고 있다. 하나는 眞僞判斷의 副詞가 나타내는 modality 이고, 또 하나는 附加疑問文이 함축하는 modality 이다, 그리고, 이 두 개의

19) 本稿 pp.8-9(Ⅲ-1.2.)參照.

modality는 同一 命題을 作用域으로 삼고 있다. 이런 경우, 兩者의 衝突의 발생 與否는 附加疑問의 意味 機能에 달려 있다.

附加疑問의 기능은 “인토네이션(intonation)”에 反映된다. 부가의문이 上昇調의 抑揚을 가지면, 그 기능은 순수한 ‘yes-no 疑問文’처럼, 聽者에게 眞僞에 관한 情報를 구하는 것이 된다. 곧, 話者는 명제내용의 眞僞를 不明한 것으로 前提하고서, 聽者에게 그 眞僞를 묻고 있는 것이다. 이와는 반대로, 附加疑問이 下降調이면, 그 기능은 確認을 구하는 것으로서, 話者는 명제내용에 대하여 어떤 論評을 이미 내린 다음, 聽者에게 同意를 요청하고 있는 것이다.

‘眞僞判斷의 副詞’가 附加疑問과 서로 和合하는 것은, 부가의문이 下降調인 경우이고, 上昇調인 경우에는 自然스럽지 못하다. 이러한 差異는 두 개의 modality가 서로 矛盾하느냐 아니 하느냐에 따라 發生한다.

附加疑問이 上昇調를 취하면, 話者는 主節이 보이는 「命題의 眞僞에 관한 情報」를 聽者에게 구하고 있으므로, 그 命題의 眞理值에 대하여 아무런 意見도 갖고 있지 않는, 말하자면 中立的인 입장에 있는 셈이다. 그런데도 主節에 ‘眞僞判斷의 副詞’가 이미 나타나 있다는 것은, 話者가 이미 命題에 관한 어느 程度의 眞理值를 主張하고 있는 셈이므로, 矛盾이 되는 것이다.

(34-a)를 例로 든다면, 主節에서 話者는 “Frank는 아마, 상대방을 모두 무찌렀을 것이다”라고 主張하고서, 곧 이어, 上昇調의 附加疑問을 쓴다면 “상대방을 모두 무찌렀습니까?”라고 묻는 셈이 된다. 곧, ‘probably’에 의하여 眞理值의 높은 蓋然性을 主張하면서, “didn't he?”에 의하여 그 眞僞를, 中立的인 입장에서 묻는다는 것은 自家撞着이 된다.

이와는 對照的으로, 附加疑問이 下降調이면, 話者에게 自家撞着的인 요소는 없다. 왜냐하면, 下降調에 含意되는 話者의 태도는 다만 聽者의 確認을 요청하고 있을 뿐이기 때문이다. (34-a)의 경우, 話者는 主節에서 “Frank는 상대방을 모두 무찌렀다”라는 命題에 대한 높은 蓋然性을 主張하고 있지만, 그 주장은 聽者의 同意 내지 確認을 요청할 수 있는 合理的推測이기 때문에, 附加疑問이 뜻하는 確認의 態度와 결코 矛盾되지 않는다. 곧, 『“심중 판구 그랬을거라고” 나는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았을까요?』라고 確認을 요청하고 있음에 불과하다.

이와 같이, 下降調의 附加疑問은, 主節에 있어서의 話者의 commitment를 취소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그 commitment 위에 서서 確認을 구하는 姿勢를 나타내는 것이다.

이러한 英語表現에 대응하는 國文表現은 여러가지 있을 수 있지만, (34)의 경우에는, 各譯文이 시사하는 것처럼, 英語와 國語의 modality 表現 사이에는 거의 一對一에 가까운 對應을 이루고 있다. “probably……, didn't he?”에는 『아마, ……한 것 아닐까요?』가

對應한다고 볼 수 있고, “certainly……, hasn't he?”에는 『틀림없이, …… 했을거요』 그리고 “evidently……, didn't he?”에는 『분명히, ……한 것 같군요』가 相應한다고 말할 수 있다. 아 물론, 이 모든 경우에, ‘眞僞判斷의 副詞’가 附加疑問과 서로 和合하여 話者의 確認의 態度를 생성할 수 있다는 것은 주목할 만하다.

IV - 4. (眞僞判斷의 肯定性) 眞僞判斷의 副詞는 形態에 있어서, 또는 意味에 있어서, 肯定的이라야 한다. 곧, 否定形은 ‘眞僞判斷의 副詞’가 될 수 없다.

- (35) a. Probably
 b. Possibly
 c. Certainly
 d. Evidently
 } John will come.
- (36) a. *Improbably
 b. *Impossibly
 c. *Uncertainly
 d. *Not evidently
 } John will come.

(35)와 (36)의 差異는 形態上的 ‘肯定’과 ‘否定’에 그치지 않고, 意味에 있어서도 ‘肯定’과 ‘否定’의 差異가 있는 것이다. 게다가, 形態적으로는 否定形이라 하더라도, 意味가 肯定的이면 ‘眞僞判斷의 副詞’로서 그 機能을 수행할 수 있는 副詞도 있다.

- (37) a. Undoubtedly, mushrooms are great for diets.
 의심할 여지없이 (= 확실히) 버섯은 體重調節에 효과가 있다.
 b. *Doubtfully, mushrooms are great for diets.

Undoubtedly에는 否定의 形態素 un-이 포함되어 있지만 그 意味는 肯定的이고, 반대로 doubtfully에는 否定의 形態素가 포함되지 않지만 그 意味는 否定的이다.

以上과 같은 觀察에서 알 수 있는 것은, 意味上 否定值를 가지는 ‘眞僞判斷의 副詞’는 없다는 사실이다. 결국 ‘眞僞判斷의 副詞’는 항상 ‘肯定值를 갖는 副詞’로 제한되어 있는 것이다. 그 理由는 바로 ‘眞僞判斷 副詞’의 本來的 性質과 관련되어 있다. 眞僞判斷의 副詞가 수식·한정하는 對象은 命題內容이며, 또 그 機能은 命題의 ‘眞理值의 高低’를 査定하는 일이다. 이 경우, 看過해서는 안될 점은, 그 查定的 判斷은 항상 零(zero)을 起點으로 하여 ‘플러스(plus)’의 方向으로 나간다는 사실이다. 『III』에서 論議한 ‘價値判斷의 副詞’에는 unluckily, unbelievably, not surprisingly 등 否定의 意味를 갖는 副詞들이 들어 있지만, 그 까닭은 ‘價値判斷의 副詞’의 判斷對象이 命題 自體가 아니라, 그 命題가 서

술하는 狀況·事態(에 대한 평가)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命題 自體를 對象으로 하고, 命題의 眞理值가 높으나, 낮으나를 查定하는 '眞偽判斷의 副詞'와는 그 性質에 있어서 확연히 다른 것이다. 이러한 性質의 差異가 否定值를 혹은 排斥하고 혹은 受容하는 分岐點을 형성하고 있다.

IV - 5. (Modality 成分의 累積的 效果) 眞偽判斷의 副詞는 命題內容의 眞偽의 程度에 대하여, 話者가 發話時點에서 查定的 판단을 내리는 modality 表現이다. 그리고, 이미 지적한 바 있지만, 서로 矛盾이 되지 않는 한, 한 文章 가운데 두 개 以上の modality 表現이 나타난다 하더라도 異常할 것 없다.

- (38) a. He *might* have built it *conceivably*.
어쩌면, 그가 그것을 세웠다고 생각할 수도 있네.
- b. *Certainly* he *might* have built it.
틀림없이, 그가 그것을 세웠을런지 모르지.
- c. *Perhaps* he *might* have built it.
행여나, 그가 그것을 세웠을런지 모르지.

이러한 경우 *might* 는 主觀的, 陳述緩和的(epistemic)인 敍法助動詞로서, 話者의 '삼가는' 推定的 判斷을 나타내는 modality 表現이다. 또한, 眞偽判斷의 副詞 *conceivably*, *certainly*, *perhaps* 도, 비록 命題의 眞理值에 대한 查定的 判斷의 '높·낮이'에 있어서는 각각 差異가 있을지언정, 모두 *might* 와 同質的인, 적어도 서로 矛盾은 되지 않는 modality의 성질을 지니고 있다. 더우기,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서로 矛盾되지 않는 modality 表現이 여러 點으로 포개어 累積的 效果를 나타내고 있다.

- (39) A: Johnny is sick.
 B: *I wonder if perhaps it might be measles, might it don't you think?*

A의 發言을 받아서 B가 한 發言은 마치 modality 表現의 連續體와도 같은 印象을 준다. 命題는 "it is measles" 部分뿐이고, *I wonder if, perhaps, might, might it don't you think?* 는 모두 modality의 機能만을 수행하고 있다. 話者는 『그 病은 紅疫이다』라는 命題의 眞理值에 관하여 극히 "낮은" 查定的 判斷을 내리고 나서, 그 判斷의 妥當性에 대하여 聽者의 確認을 구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그 modality 表現도 여러 點으로 쌓음으로써, 話者의 發話時에 있어서의 纖細·微妙한 心的狀態를 드러내 보이고 있다. 이 예는 命題內容의 理解란, 문장의 理解에 있어서, 반쪽에 불과함을 뚜렷이 보여 준다.

英語에서 뿐만 아니라, 韓國語에 있어서도 modality 表現의 累積은 話者의 微妙한 심리상

태를 投影한다.

- (40) a. 아무래도 미국이 중재해야 되겠나 봐.
 b. 어쩌면, 그것은 그의 獨特한 羞恥心 탓이 아닐지 모르겠어.
 c. 짐작하건대, 김교수는 필경 그 일을 거부하지 않을 것이 아닌가 하고 나는 생각하
고 싶어.
 d. 행여나, 무슨 사고라도 난 것이 아닌가 하는 걱정이 든단 말이야.

下線部分은 모두 modality 를 含意하고 있다. 이러한 國語의 modality 表現은, 대체로 文章의 첫 部分과 끝 部分에 위치하여, 命題內容을 에워싸는 方式을 취한다. 그리고, modality 表現의 效果는, 그것을 除外한 命題內容만을 구성하는 문장과 對比시켜 보면, 鮮明히 드러난다.

V. 發話行爲의 副詞

發話行爲의 副詞는, 發話時에 있어서의 話者의 心的態度를 表明한다는 점에서, 분명히 modality 副詞이다. 그러나, 이 副詞가 다른 modality 副詞類와 區別되는 까닭은, 그것이 命題內容 자체와 관련하는 것이 아니라, 命題內容의 提示樣式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이다. 곧, 命題內容을 어떤 方式으로 進술할 것인지, 話者 스스로 自己의 發話樣式에 제한을 가하는 作用·機能을 갖는다.

- (41) a. *Frankly*, I am tired.
솔직히 말해서, 나는 피곤하다.
 b. *Strictly speaking*, nobody is allowed in here.
엄격하게 말하자면, 여기는 出入禁止입니다.
 c. *In short*, he is crazy.
요컨대, 그는 머리가 이상합니다.

(41)의 *frankly*, *strictly speaking*, *in short* 등과, 이에 對應하는 國語表現 『솔직히 말해서』, 『엄격하게 말하자면』, 『요컨대』 등이 바로 發話行爲의 副詞이며, 이들은 그 다음에 오는 命題內容의 提示樣式을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

英語에 있어서 다음과 같은 paraphrase 가 주어질 때가 있다.

- (42) a. *Frankly*, there is no reason for it.
率直히 말해서, 別로 理由가 없습니다.

b. *I am being frank in saying that there is no reason for it.*

별로 理由가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저는 率直히 말씀 올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嚴密한 뜻에서는, (42-a)와 (42-b) 사이에 paraphrase의 관계가 성립된다고는 말할 수 없다. Frankly와는 달리, *I am being frank in saying that* ……는, 嚴密하게 말하자면, modality表現이 아니라,²⁰⁾ 命題의 일부를 형성하는 成分이라고 할 수밖에 없다. 그 까닭은, 話者가 自己의 심적 태도를 客體化한 形式으로 서술하고 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서, 話者는 自己의 發言態度에 거짓이 없음을, 主觀的이 아니라, 客觀的으로 서술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差異는 『率直히 말해서』와 『…라고, 저는 率直히 말씀올리고 있는 것입니다』라는 國語表現에서도 感知할 수 있다.

V-1. (樣態副詞와의 類似性) 英語에 있어서나, 韓國語에 있어서나, 發話行爲의 副詞는 본질적으로 樣態副詞라고 생각할 수 있다. 英語의 경우, 述語動詞가 tell, speak, lie, answer와 같은 言語行爲를 뜻하는 動詞(以下『言表 動詞』라고 略稱하기로 한다)이면, ‘發話行爲의 副詞’를 樣態副詞의 位置에 배치할 수 있으며, 그렇게 함으로써 述語動詞를 수식 한정할 수 있다.

(43) John told the story to Bill { truthfully.
frankly.

John은 Bill에게 { 숨김없이 } 그 이야기를 털어 놓았다.
솔직하게 }

그러나, 같은 副詞가 文頭に 오면, 그 곳은 ‘發話行爲의 副詞’의 本有的 位置이기 때문에, 述語動詞가 『言表 動詞』이든 아니든간에 ‘發話行爲의 副詞’로서 역할을 한다.

(44) Truthfully, } John lied to Bill.
Frankly, }

숨김없이 말하자면 } John은 Bill에게 거짓말을 했다.
솔직히 말해서 }

이렇게 『發話行爲의 副詞』와 『樣態副詞』를 구별하는 基準의 하나는 그 副詞의 位置이

20) 本稿 脚註 10)의 (a) 例文에도 Frankly, John lied to Bill.(= *I am being frank in saying that John lied to Bill.*)가 포함되어 있지만, 이것은 ‘話者指向의 부사’와 ‘主語指向의 부사’(例: John told the story to Bill frankly = *John was frank in telling the story to Bill*)를 區別하기 위한 便宜上의 표현이지, *I am being frank*가 modality表現이라는 주장은 아니다.

다. 韓國語에서도, “그이는 정말로 빨리 달린다”처럼, ‘정말로’가 文中에 있으면, ‘정말로’는 ‘빨리’를 修飾하는지 아니면 文章全體를 수식하는지 曖昧하지만, 그 副詞의 位置를 文頭로 變換시켰을 경우에는 文章副詞임이 확실해진다.²¹⁾ 그러나, 한국어의 경우, ‘發話行爲의 副詞’는 그 位置보다도 副詞의 表現形式에 더욱 뚜렷이 나타나는 것 같다. 곧 ‘숨김없이 말하자면’, “솔직히 말해서”처럼 『發言行爲』를 뜻하는 表現이 直接的·明示的的成分이 되어, 發話行爲의 副詞(節)임을 표시하는 경우가 많다.

이와 관련하여 주목할만 한 言語現象에, 述語動詞와 樣態副詞와의 『共起制限』이란 것이 있다. (44)의 truthfully, frankly를 (43)처럼 그 位置를 文尾로 옮기면, 樣態副詞로서 작용하느냐 하면, 그렇지 못하고, 도리어 文章 전체가 非文이 되어 버린다.

(45) * John lied to Bill { truthfully.
frankly.

이 문장의 非文法性은 『그 副詞는 文尾로 옮겨도 樣態副詞로서 작용하지 못한다』를 뜻하는데 있는 것은 아니다. 도리어, 樣態副詞이기 때문에, 그 부사가 修飾·限定하는 lie와의 共起性에 問題點이 생기는 것이다. A truthful lie, a frank lie가 意味를 發生시키지 못하는 것처럼, lie truthfully 나, lie frankly 나 모두 意味를 발생시키지 못하는 結合이기 때문에 (45)는 非文이 된 것이다.

‘發話行爲의 副詞’가 樣態副詞의 特殊用法이란 것은, 다음과 같은 疑問文에 있어서의 ‘最小對立雙(minimal pair)’에서도 觀察될 수 있다.

- (46) a. Frankly, did he speak to them about it?
솔직히 말해서, 그가 그들에게 그 일을 말했습니까?
b. Did he speak to them about it frankly?
그가 그들에게 그 일을 솔직하게 말했습니까?

(46-a)는 ‘發話行爲의 副詞’인데 반하여, (46-b)는 樣態副詞이다. (46-b)의 frankly는 述語動詞인 동시에 『言表動詞』²²⁾인 spask를 수식 한정하고 있지만, (46-a)의 frankly는, 그 『言表動詞』를 수식하는 것이 아니라, 命題의 提示方式을 규정하고 있다.

다음과 같은 경우에도, 發話行爲의 副詞인 truly는, 述語動詞가 『言表動詞』이기 때문에, 樣態副詞로서 작용하고 있다.

21) 서정수. 1975, *op.cit.*, p.74.

22) 本稿에서는, speak, tell, lie, answer와 같이 言語(發言)行爲를 뜻하는 動詞를 「言表動詞」라고 略稱하고 있다.

- (47) a. *Answer my question truly.*
 저의 질문에 사실대로 대답하여 주십시오.
 b. *It is truly said that seeing is believing.*
 百聞不如一見이란 정말 적절한 말이다.

곧, 述語動詞가 *speak, tell, say, lie, answer* 등과 같이 言語行爲를 뜻하는 『言表 動詞』인 경우에는, 發話行爲의 副詞는 그 位置如何에 따라서는 樣態動詞로도 作用한다. 그러므로 發話行爲의 副詞는 樣態副詞의 特殊用法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關係는 다음에 論議될 『疑問文·遂行文과의 共起性』 또는 『談話에 있어서의 問答』등에서도 觀察될 수 있다.

V - 2. (疑問文과의 共起性) 發話行爲의 副詞는, 價値判斷의 副詞 또는 眞僞判斷의 副詞와는 달리, 疑問文과 함께 나타날 수 있다. “疑問文과 함께”라는 뜻은, 疑問文 가운데 나타난다는 것이 아니라, 疑問文의 文頭에, 그것도 쉼 표 (comma) 를 거느리고, 나타난다는 뜻이다. 이렇게 疑問文의 文頭에 나타날 경우, 그 發話行爲의 副詞는 話者의 modality (發話時의 心的態度) 를 보일 때가 있는가 하면, 聽者의 modality 를 보일 때도 있다.

- (48) a. *Seriously, do you intend to resign?*
진정으로 말해서, 자네는 그만 둘 작정인가?
 b. *Truthfully, is Mary a genius?*
사실대로 말해서, Mary는 천재인가?

(48-a)에서 話者는 聽者에게 “辭退할 작정이냐”고 물으면서, 그 質問에 ‘진정으로’ 對答해 주기를 要請하고 있다. 결국, 聽者의 應答樣式에 制限을 주고 있는 것이다. 國語表現인 『진정으로 말해서 (또는 진정한 이야기가), 사직할 작정인가?』의 ‘진정으로 말해서’, ‘진정한 이야기’ 라는 語句도, 『聽者가 ‘진정으로’, ‘진정한 이야기로’ 應答하라』는 그의 應答態度를 指稱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48-b)도 똑같은 現象이다. *Truthfully*는 話者 自身の 質問方式에 制限을 주는 것이 아니라, “Mary는 天才이냐”라는 質問에 聽者가 사실대로 對答하도록 ‘聽者의 應答樣式’에 制限을 주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48-a)와 (48-b)는 그 意味에 있어서, 다음 문장과 等價的이라고 할 수 있다.

- (49) a. *Tell me seriously whether you intend to resign.*
 진정으로 대답해 주었으면 하는데 (또는 하지마는), 당신은 그만 둘 작정입니까?
 b. *I request you that you tell me truthfully whether Mary is a genius.*
 사실대로 들려 주었으면 하는데 (또는, 하지마는), Mary는 천재입니까?

여기에서 볼 수 있는 것은, (49-a)와 같은 命令形은, 보다 分析的인 表現을 씀으로써, (49-b)와 같은 遂行文(Performative Sentence)의 形式으로 擴張할 수 있다는 점이다. 이 두 가지 경우에 共通되는 점은, *seriously, truthfully* 라는 副詞가 (you) tell me를 한정하는 位置에 와 있으며, 또 그 限定하는 방식이 樣態副詞의 機能과 一致한다는 사실이다. 곧 여기에서도 相對者의 發言樣式에 制限을 주는 作用을 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49)의 英文과 等價的이고도, 自然스러운 國語表現을 얻으려면, 連結法의 從屬形 ‘~는데’, ‘~마는’ 등이 연결시키는 節의 形式을 택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 節이 곧 全體로서 ‘發話行爲의 副詞’로서의 機能을 수행하게 된다.

이미 論한 바와 같이, (48-a)와 (48-b)는 聽者의 發言樣式(곧, 應答樣式)을 한정하는 것으로 해석되었지만, 똑같은 疑問文 形式을 쓰고서도, 話者의 發言樣式(곧, 質問樣式)을 한정하는 것으로 해석되는 경우도 있다. 그러므로 다음과 같은 疑問文은 두가지 解釋이 가능하다.

- (50) a. *Frankly, is he tired?*
 (솔직히 물겠습니까마는 vs. 솔직히 돌려 주셨으면 합니까마는)
 b. *Candidly, who broke the window?*
 (기탄없이 물겠습니까마는 vs. 기탄없이 알려 주셨으면 합니까마는)
 c. *Confidentially, did you like the article?*
 (은밀히 묻는 것입니까마는 vs. 은밀히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마는)

이렇게 보면, (50-c)는 다음 두가지 *paraphrase* 가 가능하다.

- (51) a. *I request you confidentially that you tell me whether you liked the article.*
 b. *I request you that you tell me confidentially whether you liked the article.*

곧, (50-c)의 *confidentially*는 (51-a)처럼 話者의 質問樣式을 限定하는 것으로 볼 수도 있고, (51-b)처럼 聽者의 應答樣式을 한정하는 것으로 볼 수도 있다.

이와 같은 曖昧性은 (50)의 副詞에 對應하는 國語表現에서도 똑같이 나타난다.

- (52) a. 솔직히 말해서, 그는 기진 맥진입니까?
 b. 기탄없이 말해서, 창문을 부순 자는 누구입니까?
 c. 은밀한 얘기가, 당신은 이 논문이 마음에 듭니까?

그러나, 筆者의 直觀으로는, 韓英 兩語 모두, 疑問文에 “發言樣相을 꾸미는 副詞 또는 副

詞節”이 나타나는 경우에는, 話者의 質問樣式이라기 보다는, 聽者의 應答樣式을 限定한다고 보는 것이 自然스럽다고 생각된다.

發話行爲의 副詞가 聽者의 言語行爲의 樣相을 한정하는 것은 다음과 같은 『談話에 있어서의 問答』에서도 뚜렷이 觀察될 수 있다.

- (53) A : I'm going to resign.
B : *Seriously?* (정말입니까?)

人物A의 이야기에 反應하는 B의 "seriously?"는 A가 發言한 命題內容으로 向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A의 發言 態度로 向하고 있다. B의 "seriously?"에 담겨져 있는 意味는 다음과 같이 敷衍할 수 있다.

- (54) Were you *speaking seriously* when you said that?

여기에서 *seriously*는 뚜렷하게 *speak* 라는 『言表 動詞』²³⁾를 한정하는 位置에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이 경우의 'seriously'는 樣態副詞로서 機能하고 있음을 注目하여야 할 것이다.

V-3. (遂行文과의 共起性) '發話行爲의 副詞'는 遂行文(performative sentence)과 함께 나타날 수 있다. 그 理由는 遂行動詞(performative verb)가 『言表 動詞』라는 데서 緣由한다.

- (55) a. *Sincerely*, I *apologize* for being so rude.
그렇게 무례했던 점을 진심으로 사과합니다.
b. *Briefly*, I *promise* you to finish my work today.
요컨대, 일을 오늘 중으로 완성할 것을 약속합니다.
c. *Precisely*, I *order* you to get out of here.
똑똑히 명령해 두지만, 자넨 여기에서 나가 주게.

I *apologize*, I *promise*, I *order*는 遂行文의 必要條件을 만족시키고 있다. 主語는 一人稱(곧, 話者)이고, 述語動詞는 『言表 動詞』의 單純 現在形이다. 이러한 形式으로 말미암아 遂行文이라고 일컬어지며, 그 機能은 發言行爲에 있다. 發言하는 것 自體가 하나의 行爲를 遂行하는 것이 되기 때문이다.

23) 發言行爲 自體를 의미하는 動詞. 本稿 脚註 22) 參照.

‘發話行爲의 副詞’가 遂行文과 함께 나타날 수 있는 理由는 바로 遂行動詞가 tell, speak 와 같은 『言表 動詞』이기 때문이다. apologize, promise, order 등의 遂行動詞는 모두 核成分으로서 tell의 素性を 가지고 있으며, apologize = tell + α , promise = tell + β , order = tell + γ 라고 생각할 수 있다. 그러기 때문에 ‘發話行爲의 副詞’는 결국 遂行動詞에 내포되어 있는 ‘言表’ 行爲의 一面까지 한정하게 되어, (55)의 a.b.c.는 각각 “진심으로 사과합니다”, “요컨대 약속합니다”, “똑똑히 명령해 둡니다”라는 國語表現에 해당하게 된다.

‘發話行爲의 副詞’는, 發話時點에 있어서의 話者의 心的態度를 표명하는 것이기 때문에 modality 表現이며 따라서 엄연한 文章副詞이다. 그러나 그 文章副詞는, 話者의 發言樣式(곧, 命題內容의 提示方式)에 관한 것이므로, 命題의 主動詞가 『言表 動詞』인 경우에는 그 言表動詞(여기서는 遂行動詞) 까지도 한정하게 되는 것이다. 「사과하다」「명령하다」에는 ‘tell’의 素성이 내포되어 있기 때문에, 『진심으로 말해서, 사과합니다』는 결국 “진심으로 사과합니다”의 뜻이 되고, 『똑똑히 말해두지만, 命令한다』는 “똑똑히 命令해 둔다”의 뜻이 되어 버린다. 곧, 遂行文에 있어서는 modality 表現인 ‘發話行爲의 副詞’가 樣態副詞의 기능까지 兼有하게 되는 것이다.

VI. 結 言

本稿의 前提는 『發話로서의 문장은 命題와 modality의 二大成分으로 구성된다』라는 認識論的 假定이었고, 이 假定에 입각하여 文章副詞가 관련되는 여러가지 言語現象에 대하여, 統一的인 說明原理를 出 수 있음을 例證하고자 하였다. 그리고, 그 說明原理는 다음과 같이 要約할 수 있다.

첫째, 文章副詞는 命題 바깥에 있는 modality 表現이다.

둘째, modality는 『發話時라는 瞬間的 現在에 있어서의 話者(때로는 聽者)의 心的態度이며, 그 以外는 모두 문장인 命題內容을 구성한다.

셋째, modality는 時相(Tense·Aspect), 否定, 疑問, 省略, 代用²⁴⁾ 등의 作用域에 들어가지 아니하며, 또 그 對象도 되지 않는다. 바꾸어 말하면, 時相, 否定, 疑問, 省略, 代

24) 代用表現의 例

① Clearly, Hitler was a madman. ——— That's false.

② It is clear that Hitler was a madman. ——— That's false.

①의 應答部分의 That는 “Hitler was a madman”만을 가리키지만, ②의 That는 It is clear 以下 全文을 가리킨다. 곧 ①의 文章副詞 clearly는 代用表現인 That의 作用域에 들어가지 아니하며, 또 그 對象도 되지 않는다.

用表現은 모두 『命題內容 表現』하고만 관련된다.

이러한 結論을, 지금까지 例示한 言語現象의 形式속에 또는 그 背後의 陰影속에 求得할 수 있었고, 또 確認할 수 있었다. 특히, 이 結論을 『韓英語의 比較』라는 觀點에서 확인할 수 있었다는 것은 『modality와 命題의 區別』이 普遍的인 原理(linguistic universal)임을 示唆하는 것으로 보아진다. (1982.2.28)

- Summary -

“Sentence Adverbials” in the Korean and English Languages
- Modality versus Proposition -

Kang Soo-un

This paper has attempted to seek some unified principles of explanation in discriminating “sentence adverbials” from the other kinds of adverbs both in English and in Korean. These principles have been set forth as follows:

- (1) Every utterance or sentence is composed of “modality” and “propositional contents.”
- (2) “Sentence adverbials” are expressions of “modality” and hence stand outside of the “propositional contents.”
- (3) *Modality* expresses the speaker’s mental and psychological attitude to what he is saying, his evaluation of it, or shades of certainty or doubt about it at the point of his utterance which could be rephrased as “at the speaker’s instantaneous present.”
- (4) *Modality* is outside the scope of functions of tense, aspects, negation, interrogation, ellipsis, and substitution. Therefore, *modality* cannot be the subject of any of them. In other words, tense, aspect, negation, interrogation, ellipsis, and substitution are related only to the propositional contents.

These principles, which have been obtained and reaffirmed by examining more than a hundred sentences cited in this paper, are applicable not only to English but also to the Korean language. This seems to imply that the dualism of *modality* and *proposition* is a linguistic universal in the sphere of semantic interpretation.